



명절 가정 예배문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매일이 부활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처럼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과 기쁨, 풍요로움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죄의 사막에서 푸른 초장과 실 만한 물 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풀밭, 실 만한 물 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영혼의 황폐함, 영적인 곤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의존하거나 세상의 힘, 세상의 즐거움을 의존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죄의 사막이며 황폐한 곳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푸른 초장이 없을 때, 죄악의 사막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의 푸른 초장이 될 때, 영적인 삶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4절). 때로는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초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환난과 곤고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그곳을 지난다면 새로운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인도의 상징이며, 막대기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를 갖고 다니며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가 겹쳐진 것입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삶의 여러 위기들과 죄악의 유혹을 지날 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3. 공허함과 궁핍에서 풍요로운 식탁으로

다윗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여러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면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상을 차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 식탁은 많은 것이 있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기에 풍요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공허함과 궁핍함을 느끼는 이유는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취를 하거나 혼자 나가 사는 자녀가 집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식탁은 사랑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그곳에서 먹는 음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이 늘 주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

민족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추도예식의 의미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예식을 갖습니다. 추도식은 ¹고인을 추모하고 ²생전의 은덕과 뜻을 기리며 ³가족들의 신앙을 독려하여 화목을 다지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의미로 사진을 놓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좋지만, 상을 차리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삼갑니다.



명절 가정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순서

1 예식사 | 인도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 묵상 기도 시편 128:1~4 | 인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3 찬 송 새 28장(통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같이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4 기도 | 인도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붙잡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거룩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충만한 입재로 함께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성경 봉독 | 다같이

시편 23편 1~6절

- 1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 설 교 | 설교자 (아래 설 교 참조)

7 기도 | 설교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로 함께 하여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 찬 송 새 435장(통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다같이

-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후렴 주께로 가까이 추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9 주님의 기도 |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 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정

시편 23편 1~6절

할렐루야! 추석을 맞아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복과 평강의 은총이 우리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시편 22편(버려진 것 같은 상황, 어렵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의 침묵) 후에 나옵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 이제 그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부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